

한국지사 연락처

Heetaek Hwang
Relationship Manager, Korea
heetaek.hwang@swift.com

Brown Lee
Relationship Manager, Korea
brown.lee@swift.com

Fast facts

일자

2009년 6월 17일

참석자수

220

발표자

18

SWIFT 파트너사

COMAS

Clearstream



글로벌 충격파, 그 시험대 위에 놓인 한국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2009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SWIFT 회원기관들이 최근의 지역간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특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세계 금융기관들간의 만남으로 현재 금융산업과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계 각국이 각각 복합적인 금융 및 경제쇼크와 여진에 맞닥뜨리는 동안, 대한민국도 그 같은 위협들로부터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한국을 글로벌 위기의 파장으로 부터 막을 수 있을까요? 신용경색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위에 언급된 질문들은 지난 6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2009 SWIFT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한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논의한 의제이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지급결제 및 증권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IT전문가, 관련 기업, 테크놀러지 기업, 서비스 업체, 은행의 영업 및 비즈니스 담당 직원 등 금융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된 2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 금융 업계의 최대 행사를 빛내 주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16명의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표준화와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위기 극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급망 및 무역 거래 관리, 증권, 지급결제 및 자금 관리 분야에 대한 최근의 발전 상황과 시장 동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를 아우른 주요 주제는 ‘공조’로, 이는 최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 소비자, 파트너사간 협력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세계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 서울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은 이미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사례를 상기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자신감에 가득 찬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

SWIFT 아태지역 사장인 이안 존스턴의 희망에 가득 찬 환영사로 이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는 환영사에서 지난 몇 개월간 전세계를 뒤덮은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 스스로가 이번 글로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낙관하면서, 위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동북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써 한국의 금융 산업을 발전 시켜야



전한백, 한국은행 결제시스템부 국장



이번 일일 행사는 행사장을 가득 매운 참석자들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시작되었고, 표준화와 SWIFT 파트너사에 대해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전 참석자가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기업자금관리, 증권 및 펀드, 무역과 공급망을 포함한 테크놀로지와 인터페이스 기술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되는 워크숍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포럼 행사와 관련한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SWIFT 공식 홈페이지 www.swiftcommun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포럼의 환영사를 통해서, “내일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부딪힌다면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며 이날 포럼의 참석한 모든 참석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확고부동의 경제

첫 본회의는 각 지역의 선임 금융 전문가들이 발제 한, 2009년 현재 금융 산업이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 위기 혹은 기회냐에 대한 진단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전한백 국장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규제당국에게 국내 금융 산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장치 마련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상황에 맞는 견제와 균형 장치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규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블레어, J.P. Morgan의 재무, 증권 및 고객채널관리 최고 책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현시점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였다. “한국은 풍부한 IT 기반과 세계시장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여러 강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결국 현재의 침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면서, “21세기를 흔히 들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한국이 그 아시아의 중심 시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이 수출 강국으로써의 노하우를 살려 기술 표준화나 녹색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개척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WIFT 한국 사용자 모임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외환은행 권오훈 부장 역시, 한국 금융 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조화라는 가치를 근간으로 한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신한, 외환은행이 기금을 마련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 커뮤니티들이 공통된 비전으로 생각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기가 곧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제회복의 신호탄, 표준

SWIFT Korea의 황희택 대표는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 시장이 점점 상임대리인이나 투자자 커뮤니티에게 SWIFT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이는 곧 전체 증권업계의 STP, 효율과 투명성을 재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P. Morgan의 밥 블레어 또한 최근의 기술적인 발전에 초점을 두어 표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ISO15022와 호환가능한 SWIFT의 새로운 메시지 ISO20022 개발을 소개하면서, 이번 개발을 통해 표준화와 조화를 바탕으로 SWIFT가 세계 최대의 금융서비스 표준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금이 왕

오후에 시작된 자금관리 워크숍은 SWIFT 아태지역 지급결제시스템 최고 책임자 아심 고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은 최근의 사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입을 모아 지적하면서 유동성 관리가 사업 성공의 키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아심은 요즘 기업들이 기업의 돈의 쓰임 및 흐름의 출처를 완벽히 알고 있기를 원하고, 동시에 다양한 금융 기관과의 다자간 거래(multi-banking)을 확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아시아에서는 덜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주목할만한 또 다른 경향은 유럽시장의 SEPA처럼 기업들이 단일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LG CNS의 박영지 부장은 LG처럼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위한 SWIFT를 이용한 기업의 유동성 관리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SWIFT의 솔루션이 자금의 집중화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더 나은 금융자산관리의 실현을 통해 고객 서비스, 리스크 관리, 이윤 향상에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권오훈, 한국 외환은행 부장 / 한국 SWIFT 사용자 모임 회장.



▲ 왼쪽부터:

로버트 블레어, J.P. Morgan 기업고객관리, 재무, 증권부 최고 책임자

마크 R. 워셔, Citi 그룹 국제 자금거래 서비스, 재무, 트레이드 솔루션 책임자



▲ 왼쪽부터

백윤주, 한국외환은행 영업지원팀장

아심 고얄, SWIFT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결제시스템 최고 책임자

마크 R. 워셔, Citi 그룹 국제 자금거래 서비스, 재무, 트레이드 솔루션 책임자

박영지, LG CNS 부장





▲ 왼쪽부터

이종형, 한국예탁결제원 국제관계 및 기획팀 부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SWIFT 자산관리 팀의 **조슈아 데릭**과 **리사 오코너**



▲ **장철복**, SC 제일은행 투자, 중계 및 트랜잭션뱅킹부 이사



▲ 왼쪽부터

이영승, J.P Morgan 재무서비스, 북 아시아 지역 무역 금융 영업부 최고 경영자

코니 룡, SWIFT 아태지역 총괄 무역 및 공급망 이사

강신원, 한국외환은행 차장

김기영,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 센터

Citi 그룹 글로벌 자금거래 서비스의 재무와 트레이드 솔루션 이사인 마크 워셔역시, “SWIFT 기업 솔루션은 기업의 최근 재무 관리 핵심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며 SWIFT 솔루션을 적극 추천을 했다. 또한 Citi 그룹은 SWIFT를 통하여 기업 상호 연결 망을 이어가고 있고 고객들이 SWIFTNet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모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WIFT가 Citi 그룹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환은행 백윤주 영업지원팀장은 자사의 업무 자동화를 높이고 고객서비스 및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SWIFT의 E&I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 및 진행계획을 소개하면서 지급결제에 따른 사후 관리에 있어 자동화에 의한 획기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대고객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증권 및 펀드 워크샵은 Euroclear Asia의 카림 차베인 제품관리 이사의 최근 한국의 결제시장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시장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인상적’이라면서, 그럼에도 한국과 세계 시장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피하면서 그 유동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그것을 실제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지적했다.

한편, 위와 같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국제관계와 기획팀을 맡고 있는 이종형 부장은 아시아역내에 탁결제기구와 아시아 채권 발행시장 이니셔티브의 설립 진행사항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이 시장 참가자들의 연결고리로서, 그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SWIFT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C 제일은행의 투자, 중계 및 트랜잭션뱅킹부의 장철복 이사는 한국 펀드 시장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 자사에서 실행한 자동화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발견된 찬반 양론을 같이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시티은행, 증권 및 펀드 서비스 팀의 김희진 부장은 운영상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자동화 정보 수집과 통지 서비스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자산관리 서비스와 증권 거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무역 거래 체계

무역 및 공급망 워크샵에서는 한국외환은행 강신원 차장이 무역금융거래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자사의 노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최근 세계 무역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국내, 외 금융 기관들은 수출납품 대금결제기간을 단축 시키고 그 처리 시간과 비용도 축소시켜 기업고객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함”을 강조하면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E-Nego, SMART OAT (SWIFT의 TSU 응용), 외환은행의 얼티 및 e-트레이드 서비스를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강 차장은 발표 말미에 무역과 관련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입, 수출 산업의 완전 자동화를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감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전자무역추진센터 김기영은 기관이 추진중인 uTradeHub 서비스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워크샵 참가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uTradeHub란 단일 윈도우

시스템과 e-Nego & Global e-Trade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무역 및 공급망 서비스로서 uTradeHub가 어떻게 기업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J.P Morgan 재무서비스, 북아시아 지역 무역 금융 영업부의 이영승 최고 책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총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량 감소가 두드러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를 선도하는 만큼 정부, 기업간의 조화 노력에 선봉장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통합이 가져오는 혜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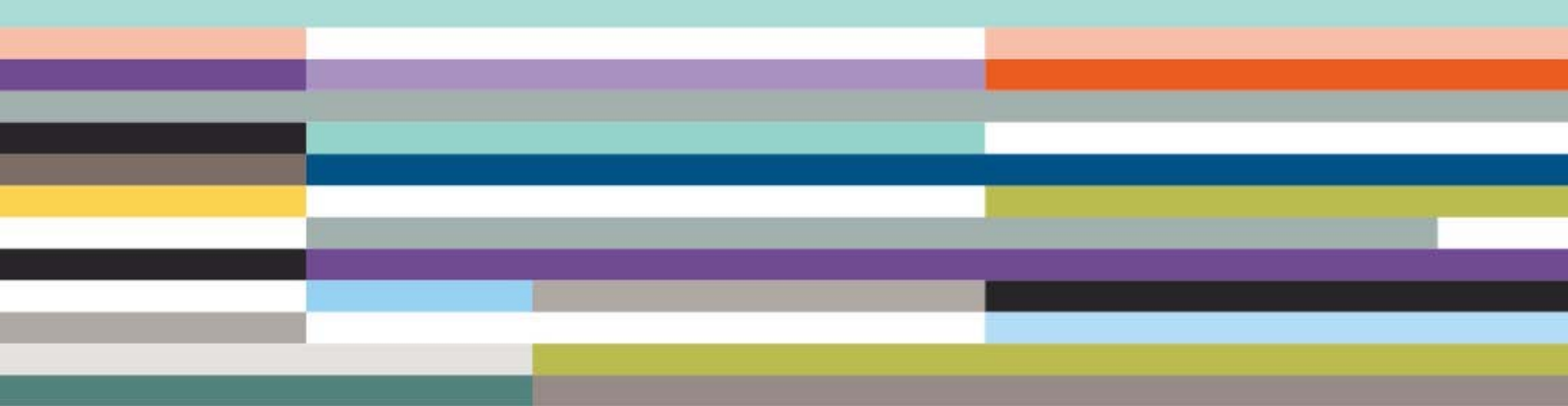
테크놀로지 및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한 워크샵에서는 SWIFT 영업부 프로젝트 매니저인 사이먼 라우는 SWIFT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기능들 뿐만 아니라 매우 손쉽게 낮은 비용으로 SWIFT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라이트 및 인테그레이터가 향후 가져다 줄 관리비용 감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통합된 비즈니스 솔루션의 혜택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

한편 SWIFT Korea의 한국담당인 이정길 이사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 소개를 통해 SWIFT가 제공하는 다양한 고객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 및 2009년 진행 중인 캠페인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역사회환원...

한국에서 열린 이번 SWIFT 포럼을 축하하며, SWIFT가 한국어린이재단을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린이재단은 국내의 불후한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후원하는 비영리단체로 한국어린이재단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기부는 한국어린이재단의 공식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on
www.swift.com

To join the community debate
visit www.swiftcommunity.net

Produced by SWIFT
SWIFT © 2009